

2024
PRE

옥천 사진제



동그라미사진연구회

2024

pre

Ok Cheon

photo

festival

인사의 글

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사진연구회 회장 이진영입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진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사진가라면 누구나 꿈꿨을 개인전을 우리 고장 옥천에서 열게 되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섯 작가님의 릴레이 개인전을 시작으로 가을 대청호 수변마을 아카이빙 회원전까지

“2024 PRE 옥천사진제”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매주 수업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며 틈틈이 작품을 만드느라 고생하신 다섯 분의 작가님들과

개인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을 회원전을 준비 중인 동그라미사진연구회 회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전의 꿈을 실현하게 지도해 주신 이재복 작가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옥천 시인 류시화 님의 시처럼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하고 있음을 사진을 하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 삼삼오오 지원금은 작년 회원전을 할 수
있는 씨앗이었으며 올해 개인전을 열고 옥천사진제를 개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황규철 군수님께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견지명이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작은 씨앗이 풍성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술을 사랑하시는 문화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옥천에서

성대하고 명실상부한 옥천사진제가 매년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1

동그라미사진연구회
회장 이진영

2024 PRE 옥천 사진제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이재복

충북 옥천에서 지역 이름을 건 사진제를 시도한다. 전국적으로 사진 축제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몇몇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역의 내용을 소개하기보다 국내외 유수의 작가를 초청해 사진제를 기획하기 일쑤다. 격조 높은 축제를 위해 역량 있는 기성 작가를 섭외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지역 축제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번 옥천 사진제는 2023년 결성된 “동그라미사진연구회(회장 이진영)”로부터 시작되었다. 옥천 표기에 있어 국문, 영문 모두 ㅁ으로 시작하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단체명이다. 지역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발품을 팔아 조직한 단체이다. 2023년 사진 커뮤니티 구축을 시작으로 옥천의 서상숙 사진가와 함께 ‘빛, 그리고’라는 전시도 시도했다. 2024년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단체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지금은 옥천 사진제 구축을 목표로 사진가를 배출하고, 대청호 수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좋은 문화시설도 있었고, 충북도립대학교의 배려, 대청호 상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기반이 두터운 정원 문화 등이 있기에 가능했다. 대전 등 대도시의 접근이 용이해 도시 문화의 교류도 자연스러웠다. 이번 사진제는 옥천 사람으로 구성된 작가군과 옥천을 주제로 촬영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꾸려진다. 문화 교류에 필요한 필수 형식을 갖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작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6월 11일 오후 3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오프닝을 시작으로 충북 최초의 지역 사진제가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진 시설은 의외로 군 단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전남 화순의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강원도 영월의 “동강사진박물관”이 그것이다. 옥천에도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사진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게 된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며 주관 단체인 동그라미사진연구회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외된 회원의 유대를 위해 애쓰는 사람,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 홍보물을 만드는 사람, 집을 나르는 사람, 활동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등 단순히 한 명의 작가가 탄생하는 관점을 넘어 지역에서 사진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옥천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의 지원과 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옥천 사진제의 성공적 개최를 지켜봐 주면 좋겠다.

옥천을
기록하다

Record
Ok Cheon

전시 스케줄

오프닝 행사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옥천전문문화체험관 1전시실

옥천 사진가 릴레이 개인전

송세현 2024년 6월 10일 - 6월 16일
이진영 2024년 6월 17일 - 6월 23일
이다경 2024년 6월 17일 - 6월 23일
이종은 2024년 6월 24일 - 6월 30일
정이품 2024년 6월 24일 - 6월 30일

옥천전문문화체험관 1·2전시실

대청호 수변 아카이빙 프로젝트

2024년 10월 22일 - 10월 27일

옥천전문문화체험관 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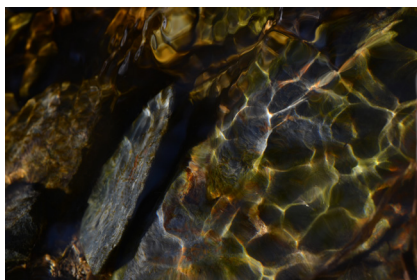
옥천
사진가
릴레이
개인전



송세헌

향수

실향의 환상통과
망향의 환상곡



이진영

금빛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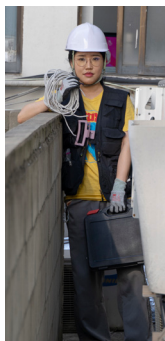
이다경

뜰 안에는...



이종은

금구리
아카이빙



정이품

진작에
그렇게 살걸

향수

실향의 환상통과 망향의 환상곡

송세헌

2024년 6월 10일 - 6월 16일

옥천전통문화체험관 1 · 2전시실

도시엔 빌딩들이 산다.

인간들은 빌딩에 기생하여 산다.

골목과 마당이 없는 삶을 살며

자연을 꿈꾸며 산다.

실향의 슬픔을 딛고 산다.



금빛천리

이진영

2024년 6월 17일 - 6월 23일

옥천전문문화체험관 1전시실

천리 세상의 강을 건너

다시 금천이네

서러워 슬피 울어도

기뻐 소리 높여도

내 안의 나를 흔드는 이여

그대 곁에 숨쉴 곳 있어

나는 빛을 보았네



뜰 안에는..

이다경

2024년 6월 17일 - 6월 23일

옥천전문문화체험관 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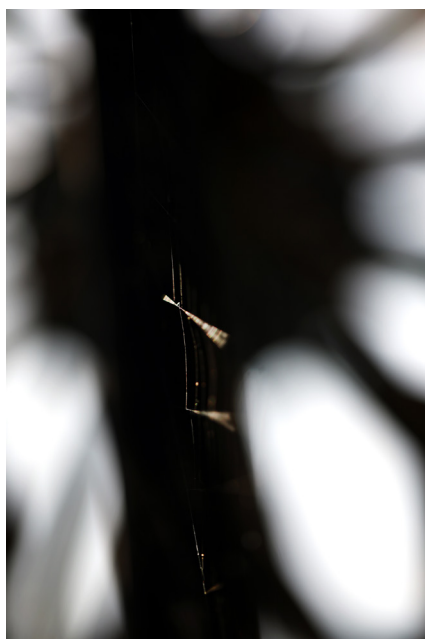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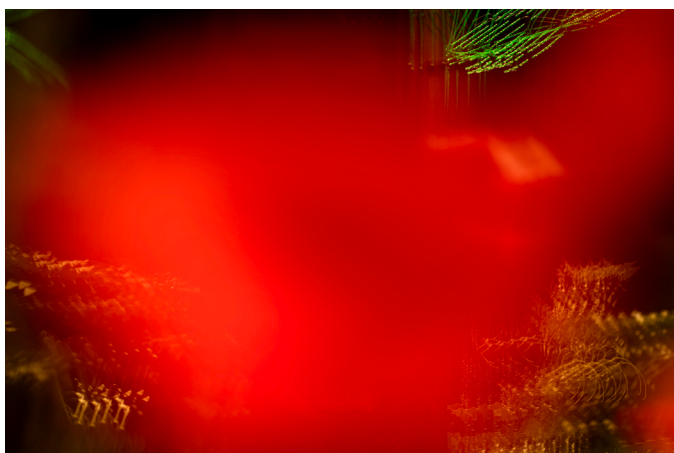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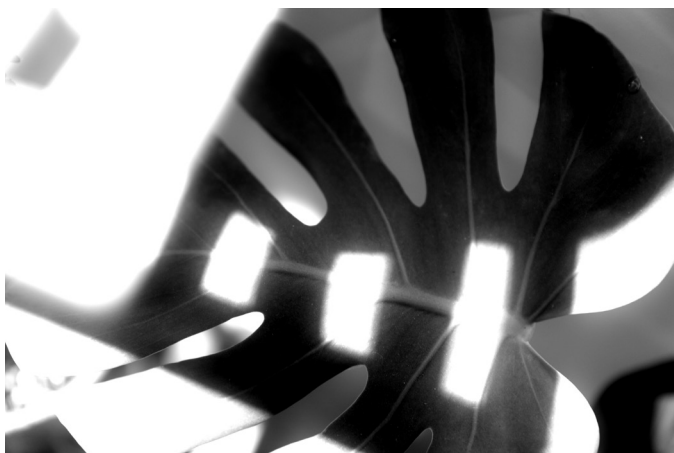
태어나 최초로 기억하는 공간에

식물이 있었고

나의 아버지는 그 식물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계셨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탓일까

사는 동안 식물은 나의 친구였고 연인이었다.



금구리 아카이브

이종은

2024년 6월 24일 - 6월 30일

옥천전문문화체험관 1전시실

매일 변하는 옥천의 중심, 금구리

오래된 흔적들을 기록하고

사회적 가치를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옥천 사람으로 금구리는 심장같은 지역으로

계속 작업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진작에 그렇게 살걸

정이품

2024년 6월 24일 - 6월 30일

옥천전통문화체험관 2전시실

다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며

별 생각없이 31년동안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냥 '그렇게' 해보는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는겁니다.







대청호 수변 아카이빙 프로젝트

동그라미사진연구회

2024년 10월 22일 - 10월 27일

옥천전문문화체험관 1전시실



2024

pre

Ok Cheon

photo festival

옥천사진제

동그라마사진연구회

기획 이재복

추진위원장 이진영

사무국장 이종은

추진위원 김동수 김명희 박영예 송세현 이다경 정이품 조경자 진주희 황건하

주최 주관



동그라마사진연구회

후원



충청북도



옥천군
OKCHEON GUN

CPU 충청도립대학교
Chungcheong Provincial University



옥천전문문화체험관